



배울 말씀 느헤미야 1:1-6:19
읽을 말씀 느헤미야 6:15-16
외울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전 15:58 상).
메인 아이디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포인트 하나님의 일을 해요!
목표 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해주심을 안다.
 ②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보고,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다짐한다.
준비물 생각마당 시각자료 20과의 손인형(예음), 말씀마당 그림책, 어린이용 교재 20과, 풀



설명

에스라의 귀환에서부터 십삼 년 뒤, 느헤미야가 인도한 제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다.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으나 바사(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라는 높은 관직에 올랐던 느헤미야는, 왕에게 귀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되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그는 귀환한 뒤 곧바로 성벽 재건에 착수하여 오십이 일 만에 그 일을 완수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성벽을 재건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여러 가지 장애에 부딪혔다.

첫째, 산발랏과 도비야 등의 방해 공작과 위협이 있었다. 이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두 무리로 나누어 한쪽은 무기를 들고 방비를 맡게 하고, 다른 한쪽은 공사를 진행하도록 지휘하며 성벽 재건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자 산발랏과 도비야는 거짓 선지자를 매수하여 거짓 예언을 하게 함으로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또한 물리쳤다.

둘째, 백성들 사이에 만연한 경제적 착취로 인한 분열도 있었다. 느헤미야는 관원들과 부자들에게 가난한 자의 빚을 탕감해줄라고 말하며, 자신도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여러 경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뛰어난 영성과 리더십을 발휘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빠른 시일 내에 재건했다. 이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이루어낸 것이었다. 하나님이 이사를 통해, 성벽을 재건할 것이며(사 61:4) 성벽을 ‘구원’이라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사 60:18)이라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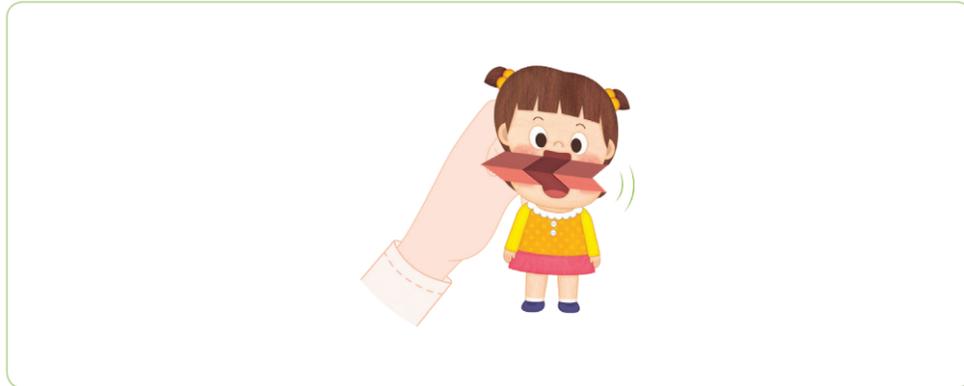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이방 민족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함께하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가 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 남왕국 유다 백성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했으며, 이방 민족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었다.

20과에서는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도우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자. 더불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도 배우게 하자. 이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신앙관을 심어줄 것이다.



READY!

생각마당 시작자로 20과를 뜯어, 손 인형 '예음'을 만들어둔다.



GO!

예음 선생님, 저 어제 아빠에게 칭찬받았어요.

교사 우아, 그랬군요. 무슨 일로 칭찬을 받았나요?

예음 엄마랑 아빠가 저녁밥을 차리실 때, 제가 숟가락이랑 젓가락을 놓았거든요.

교사 예음이가 아빠와 엄마를 도와준 거군요. 선생님도 예음을 칭찬하고 싶어요. 참 잘했어요.

(어린이들을 바라보며) 예음이는 가족과 함께 밥을 먹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아빠와 엄마를 도왔어요. 이처럼 우리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기뻐하실까요? 말씀을 통해 알아보아요.

READY!

말씀마당 그림책을 준비한다.

GO!



(20-1을 보여주며)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백성이 거의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뒤에도 '바사(페르시아)에 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느헤미야'를 가리키며) 그중에는 '느헤미야'도 있었지요. 느헤미야는 바사 왕의 궁전에서 일하는 높은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남유다 백성 '생각풍선'을 가리키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남유다 백성을 심하게 괴롭히고, 예루살렘 성은 불에 타서 무너졌다는 이야기였어요.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매우 슬퍼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루살렘 성 '생각풍선'을 가리키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루살렘 성을 쌓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일이었어요. 느헤미야는 꼭 성을 다시 쌓아야겠다고 마음먹고는, 바사 왕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왕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허락해주었어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방해하는 사람들

(20-2를 보여주며)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한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쪽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남유다 백성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읍시다!" (느 2:17)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남유다 백성은 다 함께 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서로 도우며 힘을 모으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각자 집에서 가까운 성벽부터 차곡차곡 쌓아갔

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남유다 백성을 도와주셨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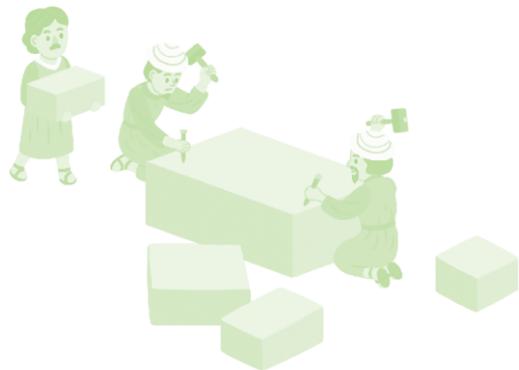
('방해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그러자 이웃 나라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남유다 백성에게 겁을 주며 방해했어요. 그러나 남유다 백성은 성 쌓기를 그만두지 않았어요. 어떤 백성들은 계속 성을 쌓고, 어떤 백성들은 성 쌓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말이에요. 성을 쌓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20-3을 보여주고, '성벽'을 가리키며)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었어요. (놀란 목소리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쌓을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남유다 백성이 힘을 모아 하나님의 일을 했고 하나님이 함께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자, 방해하던 다른 나라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 떨면서 말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성이 완성되었구나!” (느 6:16 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해요.



READY!

- ① 말씀마당 그림책을 준비한다.
- ② 어린이용 교재 20과에 있는 벽돌 그림 카드를 색깔별로 1장씩(분홍색, 파란색 총 2장씩) 어린이 수만큼 준비한다.

GO!

1. (20-1을 보여주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어떤 소식을 들었나요?
(남유다 백성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서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2. 예루살렘에 사는 남유다 백성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무슨 생각을 했나요?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3. (20-2를 보여주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자고 말하자, 남유다 백성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힘을 모아 열심히 성을 쌓았어요.)
- ▶ 이웃 나라 사람들이 성을 쌓는 것을 방해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큰 성을 빠르게 완성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힘을 모아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 하나님이 함께해주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느헤미야는 남유다 백성과 함께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았어요. 하나님은 힘써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남유다 백성을 도우시고 함께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그 일을 이루세요.



(벽돌 그림 카드를 두 장씩 나누어주며) 다 함께 저를 따라 해보세요.
 (벽돌이 보이도록 양손에 그림 카드를 쥐고) “하나님의”
 (벽돌 쌓는 흉내를 내며) “일을 해요!”
 (아래에 있는 손을 위로 올려 벽돌 쌓는 흉내를 내며) “영차!”
 (아래에 있는 손을 위로 올려 벽돌 쌓는 흉내를 내며) “영차!”

READY!

- ① 어린이용 교재 20과를 안내된 방법에 따라 어린이 수만큼 만들어둔다.
- ② 어린이용 교재 20과의 그림 카드를 어린이 수만큼 뜯어서 색깔별로 분류해둔다.
- ③ 풀을 준비한다.



GO!

남유다 백성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활동을 통해 알아보아요.

- 1. 그림 카드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해보고, 그림 카드를 붙여서 성을 꾸민다.
- ① (‘교회’ 그림 카드 세 장을 보여주며) 이 벽돌의 뒷면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인사하는 어린이’ 그림 카드를 보여주며) 어떤 그림인가요?
(대답을 들은 후) 이 어린이는 교회에서 만난 어른들께 반갑게 인사드리고 있어요.



(‘헌금하는 어린이’ 그림 카드를 보여주며) 어떤 그림인가요?
(대답을 들은 후) 예배 시간에 헌금 위원을 하고 있어요.



(‘쓰레기 줍는 어린이’ 그림 카드를 보여주며) 어떤 그림인가요?
(대답을 들은 후) 어린이들이 교회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고 있어요.



(‘교회’ 그림 카드 세 장씩을 나누어주며)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그림 카드를 나누어줄 거예요. 그림이 보이도록 내려놓고 잘 살펴보세요.

(어린이들의 그림 카드를 순서대로 가리키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반갑게 인사하는 일, 예배 시간에 헌금 위원을 하는 일, 쓰레기를 주워서 교회를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많아요.

이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지 골라보세요.

(어린이용 교재와 풀을 나누어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해요!’라고 쓰여 있는 성을 나누어줄 거예요. 여러분이 고른 그림 카드에 풀칠을 하고, 그림이 보이도록 성에 붙여보세요. (시간을 준다.)



② (‘집과 어린이집’ 그림 카드 세장을 보여주며) 이번에는 다른 색깔 벽돌을 보여줄 거예요. 이 벽돌의 뒷면에는 우리가 집이나 어린이집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가정 예배드리는 어린이’ 그림 카드를 보여주며) 어떤 그림인가요?
(대답을 들은 후) 이 어린이는 집에서 아빠, 엄마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동생을 돌보는 어린이’ 그림 카드를 보여주며) 어떤 그림인가요?
(대답을 들은 후) 노래를 부르면서 동생을 돌봐주고 있어요. 동생이 까르르 웃으며 즐거워해요.



(‘친구를 기다려주는 어린이’를 가리키며) 어떤 그림인가요?
(대답을 들은 후) 어린이집 친구들이 바깥 놀이터에 나가려고 신발을 신어요. 이 어린이는 신발을 다 신었지만, 아직 신지 못한 친구를 기다려주고 있어요.



(‘집과 어린이집’ 그림 카드 세 장씩을 나누어주며) 여러분에게 나누어주는 그림 카드를 잘 살펴보세요.

(어린이들의 그림 카드를 순서대로 가리키며) 집에서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 어린 동생을 잘 돌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린이집에서 신발 신는 친구를 기다려주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집과 어린이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많아요.

이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지 골라보세요.

여러분이 고른 그림 카드에 풀칠해서 성에 붙여보세요. (시간을 준다.)





2.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다짐한다.

이제 고리를 끼워서 성을 완성해보세요. (교사가 도와준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힘써 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뻐하세요.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우아, 너는 하나님을 믿는 어린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다짐하나요? (대답을 들은 후) 다짐하는 어린이는 각자 완성한 성을 들고, 저를 따라 말해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해요!”

이번에는 더 큰 목소리로 이렇게 외쳐보세요.

“영차영차, 하나님의 일을 해요!”, “똑딱똑딱, 하나님의 일을 해요!”



기도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우리가 어리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D

이렇게 활동해보세요

- 본 활동이 끝난 후, 어린이들의 성을 모두 연결해서 둥근 공간을 만듭니다.



- 성 안에 한 명씩 번갈아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요!”라고 외쳐보고, 마지막으로 성 밖에 둘러서서 다 같이 외친다.

tip 종이 벽돌 블록을 제공하고, 어린이들과 함께 블록을 하나씩 쌓으며 외쳐보는 것도 좋다.

하나님의 일을 해요!

